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익스트림 E 두 번째 시즌의 결승전에서 DEFY EXTREME E “ENERGY X PRIX”이 공개됩니다

익스트림 E 의 두 번째 시즌이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형의 3 개 대륙에서 4 번의 레이스가 끝나면, 우루과이 폰타 델 에스테의 해변가 도시에서 2022 년 전기차 레이스의 마지막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전기화 분야에서 선두를 이끄는 우루과이는 주로 풍력 및 수력을 활용해 전체 전기 생산량의 98% 이상을 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재생 에너지 여정의 다음 단계로 전기차로의 전환 및 친환경 연료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익스트림 E 에서도 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와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E 또한 화석 연료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생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재생 에너지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취약한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희망찬 목표를 바탕으로 DEFY Extreme E “Energy X Prix”를 선보입니다. 20 피스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이 타임피스는 카본 파이버와 티타늄 소재에 퍼플 컬러 포인트를 더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는 듯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익스트림 E 와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의 목적에 충실한 이 타임피스는 대회에서 사용된 요소를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한 스트랩 소재와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형태와 기능성을 갖춘 DEFY Extreme E “Energy X Prix”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견고한 0.01 초 크로노그래프로, 오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전기차의 오프 랠리 코스에서 검증 및 테스트를 거친 이 제품은 가볍고 견고하며 화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카본 파이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DEFY Extreme E “Energy X Prix”의 각진 구조는 마이크로블래스트 처리된 티타늄 푸셔 부분과 12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대조적인 디자인과 어우러지며 한층 풍성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다층 구조 오픈 다이얼은 티트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테일로 완성되었으며, 번개가 번쩍이는 우루과이의 하늘을 연상시키는 퍼플 컬러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다이얼의 일부분과 사파이어 케이스백에서는 0.01 초 단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며 현재 출시된 제품 중 가장 빠른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감상할 수 있고, 이와 함께 5Hz(36,000VpH)로 박동하는 시간 측정용 이스케이프먼트와 50Hz(360,000VpH)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는 이스케이프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Energy X 프리 로고가 장식된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니스는 익스트림 E 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성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제는 서로의 힘을 합쳐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DEFY Extreme E “Energy X Prix”는 첫 시즌 레이스에서 사용되었던 콘티넨탈의 크로스콘택트(CrossContact) 타이어를 재활용한 러버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이얼에 자리 잡은 에너지 X Prix 의 퍼플 포인트 컬러와 조화를 이루는 벨크로 스트랩은 코듀라 효과를 준 퍼플 러버 인레이가 중앙에 자리한 블랙 컬러의 러버 디테일을 감싸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DEFY Extreme E “Energy X Prix” 에디션과 함께 블랙 러버 및 블랙 벨크로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되며, 이는 케이스백의 간편한 스트랩 교체 메커니즘을 활용해 별도의 도구 없이 직관적이고도 기발한 방식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DEFY Extreme E “Energy X Prix”는 랠리의 극한 조건에서 영감을 받아 견고하게 제작된 방수 및 충격 방지 케이스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첫 시즌의 레이스에서 등장했던 사이드라인을 업사이클링한 다양한 디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이스 리드 부분의 코팅에는 E-그립 재생 타이어 소재가 사용되었고, 플레이트 커버는 익스트림 E 레이싱의 방수포 일부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Extreme E “Energy X Prix”는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 (Louis Blériot) 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 (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EXTREME E – ENERGY X PRIX 에디션

레퍼런스: 10.9100.9004-2/24.I301

핵심 사항: Extreme E 캡슐 컬렉션. 0.01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니스만의 시그니처인 초당 1회 회전수의 역동적인 성능(크로노 핸즈용). 시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회 - 5Hz), 크로노그래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0회 - 50Hz). 크로노미터 인증. 사파이어 다이얼. 2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9004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최소 5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01초 크로노그래프: 1초에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3시 방향에 위치한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12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마감: 무브먼트에 블랙 컬러 메인 플레이트 + 새틴 마감 처리된 블랙 컬러 스페셜 로터

가격: 26,900 스위스 프랑

소재: 카본 & 마이크로블래스트 처리된 티타늄

방수: 20ATM

케이스: 45mm.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에 Extreme E Energy X Prix 인그레이빙.

다이얼: 블랙 카운터 3개를 탑재한 틴트 처리된 사파이어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쉽게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에너지 X 프리 재생 타이어 벨크로 스트랩과 두 번째 스트랩 포함. 마이크로블래스트 처리된 티타늄 트리플 폴딩 클래스프.

